

꿀찌 KIA, 메디나·윤영철 다음 등판엔 제역할 할까

메디나, 2경기에 10실점 '머쓱'
윤영철, 키움전 1회 5실점 '진땀'



KBO 적응을 끝낸 KIA 타 이거즈 메디나·윤영철에 시선이 쏠린다. 예상과 다른 KIA의 시즌 초반이다. 야수진의 줄 부상 속 답답한 타선의 흐름이 계속되면서 최하위에서 4월을 보내고 있다.

타격 꿀찌팀으로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지만 눈길은 마운드로도 향한다.

올 시즌 KIA의 강점으로 꼽힌 부분은 마운드였다.

타격은 사이클이 있고 KIA 야수진이 세대교체 과정인 만큼 타선 보다는 마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일단 지난 시즌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을 했던 만큼 '지난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지난 시즌 선 놀린, 로니 윌리엄스 그리고 대체 외국인 선수 토마스 파노니가 책임진 이닝은 251이닝. 선발진의 이닝이 부족하면서 불펜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 투수들이 만든 승리는 14승에 불과했다.

KIA는 올 시즌 손 앤더슨과 아도니스 메디나로 새 전력을 꾸렸고, 강속구를 뿌리는 두 선수는 진화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뜨겁게 전개됐던 5선발 경쟁도 KIA 마운드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경쟁 있는 사이드암 임기영, 두 좌완 김기훈과 윤영철의 경쟁은 '막내'의 승리로 끝났다.

새 외국인 투수 듀오와 양현종·이이리 그리고 윤영철로 선발진이 구성됐고, 풍성한 좌완들로 엔트리 구성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다.



메디나

하지만 메디나와 윤영철의 시작이 좋지 못했다. 메디나는 4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처음 KBO 마운드에 섰다. 3이닝을 소화했지만 봄비가 쏟아지면서 데뷔전은 없던 경기였다.

결국 9일 두산전에서 메디나는 정식으로 첫 선을 보였고, 6이닝 4피안타(1피홈런) 5사사구 6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이 경기가 2-3패배로 끝나면서 데뷔전에서 메디나는 패전 투수가 됐다.

두 번째 등판은 14일 키움전이었다. 이날 메디나는 무려 12개의 안타를 얻어맞았다. 불빛 하나, 몸

에 맞는 볼 두 개도 남기면서 5이닝 7실점이라는 머쓱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초반 싸움에서 밀린 KIA는 이 경기에서 2-9로 졌고, 메디나는 2패째를 기록했다.

윤영철의 시작도 매끄럽지는 못했다. 윤영철은 6일 KT전 선발로 준비를 했지만 비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아예 등판 일정이 바뀌었다. 퓨처스에서 시험가동한 뒤 15일 키움전에서 윤영철의 KBO 1군 첫 등판이 이뤄졌다.

하지만 윤영철은 길고 긴 1회를 보냈다. 1회에만



윤영철

9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피홈런도 내주는 등 5실점으로 진땀을 흘렸다. 1회를 넘긴 뒤 안정감을 찾은 윤영철은 4회 투아웃까지 처리한 뒤 첫 등판을 끝냈다. 윤영철의 데뷔전 성적은 3.2이닝 4피안타(1피홈런) 5사사구 2탈삼진 5실점.

낮선 리그, 높은 무대에서 두 선발은 만족스럽지 못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두 선수는 각각 강속구와 컨트롤이라는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선 실패를 바탕으로 '예방주사'도 맞았다.

공만 빨라서는 KBO의 세밀한 타자들과 승부할 수는 없다. 프로의 세밀함은 고교 무대와는 다르다. 강약 조절과 세밀함으로 두 선발이 이닝을 책임져야 한다.

야구는 144경기 장기레이스다. 야구는 또 '투수 놀음'이라고 한다. 마운드의 힘이 바탕이 돼야 KIA가 반등할 수 있다. 일단 버티고 봐야 하는 KIA의 답답한 4월, 메디나와 윤영철의 다음 등판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김여울 기자 woz@kwangju.co.kr



AC밀란 선수들이 19일 열린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2차전에서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한 이탈리아 프로축구 SSC나폴리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 1·2차전 합계 2-1로 4강 진출을 확정된 뒤 관중석을 향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재 유럽 챔스 도전 8강에서 '멈춤'

나폴리, AC밀란에 패배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한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AC밀란에 합계 점수에서 패하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에서 탈락했다.

나폴리는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UCL 8강 2차전 홈경기에서 AC밀란과 1-1로 비겼다.

원정으로 치른 2차전에서 0-1로 진 나폴리는 1, 2차전 합계 1-2로 뒤져 4강 진출이 무산됐다.

나폴리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UCL 8강까지 올랐지만, 올 시즌 천적으로 맞선 AC밀란을 넘지 못하고 아쉬움을 삼켰다.

세리에A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선두를 달리는 나폴리는 지난 3일 AC밀란과 리그 맞대결에

서 0-4로 대패하더니 이어진 두 차례 UCL 맞대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김민재는 첫 UCL 도전을 그라운드 밖에서 쓸쓸하게 마쳤다.

김민재는 1차전에서 심판 판정에 공격하게 항의하는 불필요한 모습을 보였다가 대회 3번째 옐로카드를 받고 경고 누적으로 이번 2차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미드필더 잠보 앙귀사도 1차전에서 퇴장당하면서 2차전에 나서지 못한 터라 나폴리는 많은 전력 누수 속에 AC밀란을 상대해야 했다.

AC밀란은 우승했던 2006-2007시즌 대회 이후 16년 만에 준결승 진출을 이루는 감격을 누렸다.

나폴리는 골키퍼 알렉스 메레트가 전반 22분 울리비에 지루의 페널티킥을 선방해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앞서 나폴리 측면 수비수 마리오 후이가 하파

엘 레앙에게 거친 파울을 해 페널티킥을 내줬다.

그러나 결국 선제공격은 AC밀란의 차지였다.

전반 43분 나폴리 진영에서 탕기 은돔벨레가 실수로 받지 못한 평범한 패스가 레앙에게 연결됐다.

왼쪽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돌파해 들어간 레앙의 킥백을 지루가 원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울렸다.

탈락 위기에 몰린 나폴리는 후반 36분 상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키커로 나선 흐비자 크바라츠헬리아의 슈팅이 골키퍼 마이크 메냐의 선방에 막히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추가시간이 4분 주어진 가운데 나폴리는 종료 1분여인 후반 48분 자코 라스파도리의 크로스에 이은 빅터 오시멘의 헤더로 득점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연합뉴스

MLB '경기 시간과 전쟁'...투수판 발 때는 행위 1회 제한

경기 시간을 줄이고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정을 도입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실험을 이어간다.

MLB 사무국은 19일(한국시간) "올 시즌 독립리그인 에틀렉트 리그에 지명대주자,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때는 행위를 타석당 1회로 제한하는 규정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규정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명대주자 제도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대주자 한 명을 지정해 경기에 활용하는 규정이다.

각 팀은 경기 전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는 1명의 선수를 대주자로 지정하고, 해당 선수는 주자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대주자로 나설 수 있다.

임무를 마친 대주자는 해당 타석을 소화했던 선수와 다시 교체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프로야구에서는 한번 교체된 선수는 경기에 복귀할 수 없다.

지명대주자 제도는 빠른 주루 플레이를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 있다.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도루 시도를 하고 주루 플레이를 해야 경기의 박진감이 커진다는 것이

MLB의 판단이다.

MLB는 올 시즌 베이스 크기를 확대해 베이스 간 거리를 줄이기도 했다.

투수의 투구 지체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도 준비한다.

MLB는 올 시즌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럭(pitch clock)을 도입하면서 투수가 견제 등을 위해 투수판에서 발을 때는 행위를 타석당 최대 2회로 제한했다.

MLB는 이를 1회로 줄이는 규정을 독립리그를 통해 실험한다. 이 규정이 도입될 경우 경기 시간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MLB는 선발 투수가 5이닝 이상을 던졌을 때만 지명타자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더블록' 규정을 독립리그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MLB닷컴은 "이 규정은 선발 투수와 불펜의 역할을 뚜렷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MLB는 최근 긴 경기 시간과 지루한 진행 문제로 젊은 팬들의 유입이 줄어들자 파격적인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올 시즌엔 투구 시간을 제한하고 수비 시프트를 금지하면서 평균 경기 시간이 약 30분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최성원·산체스·한지은 프로당구 PBA로 전향

스페인 당구 전설 다니엘 산체스(49)를 비롯해 한국 3쿠션 간판 최성원(46), 국내 여자 아마추어 랭킹 1위 한지은(22) 등 아마추어 당구 거물급 선수들이 2023-2024시즌부터 줄줄이 프로당구 PBA로 향한다.

PBA는 19일 세 명의 선수가 다음 시즌 PBA-LPBA 우선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산체스는 세계당구연맹(UMB) 랭킹 2위로 16차례나 당구 월드컵 우승과 4차례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다.

프로당구 출범 이전에는 프레데리크 쿠드롱(벨컴저축은행)과 세계 당구를 이끌었고, 한국어에도 능해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졌다.

산체스는 같은 스페인 출신 선수인 다비드 사파타(블루원리조트), 다비드 마르티네스(크라운해태)의 기량이 인상적이었다며 "새로운 무대 진출을 앞뒤 살펴면서도 긴장된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성원은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3쿠션선수권과 세계 팀3쿠션선수권, UMB 세계랭킹 1위 등을 달성한 한국 3쿠션 간판선수다.

2012년 3쿠션 월드컵 우승을 시작으로 2014년



최성원



산체스

세계선수권 우승, 2017년에는 김재근(크라운해태), 2018년에는 강동공(SK렌터카)과 세계팀선수권대회에 나서 2연패를 달성했다. 최성원은 "마침내 프로 무대에 진출해서 기쁘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당구 선수로 활동했는데, 프로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지은은 현재 아마추어 여자 3쿠션 랭킹 1위다. 당구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당구에만 매진해 지난해 국내 대회에서 3번 우승하며 최정상을 밟았다. 한지은은 "LPBA는 최고 실력자가 모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함께 경쟁해 진정한 실력을 시험할 수 있게 돼 설렌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